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부활절 제3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1. 다 찬양하여라
♠ 공동기도	다함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따뜻한 봄날을 맞아 온갖 식물들이 파아란 잎사귀와 예쁜 꽃들을 한껏 피워내고 있습니다. 꽃들은 천명 받들어 생명을 피워내는데 저희들은 주님 뜻 받들어 무엇을 피워내고 있습니까? 주님, 저희는 주님의 뜻 받들기보다 내 뜻 따라 살아 왔습니다. 욕심을 품어 어리석음을 피워내며 살아왔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둠의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의 일상이 부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유혹과 시험과 환난에 흔들리고 뿌리가 뽑히는 일 없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대화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일상을 더욱 튼튼히 다지게 하옵소서. 하여 이 생명의 봄의 계절 우리들의 믿음도 아름다운 꽃으로 부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미7:18
♠ 교 독 문	20. 시편91편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대표기도	I. 한성건 선생 II. 구성실 장로
사도신경	다함께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442.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성경봉독	II. 출 14:10-16
	김훈동 집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II. 믿음이 곧 길이다
	김광수 목사
	김기석 목사

거둠의 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434.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
십시오. 세상의 그릇된 길 따라 살아가지 말고 믿음의 길 따
라 살아가십시오. 유혹에 마음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마십시
오. 언제 어디서나 주님 굳게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다 함 께 :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자녀의 직분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유혹과 시험에 그 귀한 것을 빼앗기
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악함과 어리석음으로 이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
옵소서.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제2회 신앙강좌	로마서 강해(74)
강사: 전성은 교장	기도 : 최영선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이용한 장로	임정자 권사

4월	영접위원	이용한	박창운	박규석	최숙화	노순옥	이증자
	헌금위원	한완식	김정길	김중수	조병주	김시영	김명순

목숨을 바칠 만큼 귀중한 것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귀중한 것을 아직 찾지 못한 사람은 대단히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저처럼 서른 여덟 먹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이 사람은 어떤 위대한 원칙이나 위대한 사안, 위대한 대의를 위해 일어서야 할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겁이 나서 혹은 좀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사명을 거부합니다. 직장을 잃을까 걱정하기도 하고 남들에게서 비난을 받고 신망을 잃게 될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칼에 찔리거나 앓을까, 총에 맞거나 앓을까, 겁이 폭과되거나 앓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의를 포기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흔 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나이는 아흔이지만 이미 서른 여덟에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사람이 숨을 거두는 것은 벌써 오래 전에 있었던 영혼의 죽음을 뒤늦게 알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길 거부한 그 순간에 죽은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일어서길 거부한 순간에 죽은 것입니다. 공정을 위해 일어서길 거부한 순간에 죽은 것입니다.

.....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감옥에 갈 때도 있겠지만, 그곳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옳은 것을 위해서 일어서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는 아닙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하는 자는 다수”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소수를 다수로 바꾸는 분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께 의지하여 올바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당신 곁에 계실 것입니다. 저는 번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천둥소리도 들었습니다. 범법자들이 위세당당하게 걸어다니면서 제 영혼을 정복하려 들 때마다 저는 계속해서 싸우라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절대로, 저를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마틴 루터 킹, 1967년 11월 5일, 에버니저 교회에서 한 설교)

정의를 알리는 군악대장

나는 가끔 모든 인간은 인생의 공통분모인 죽음이 닥쳐올 순간을 늘 의식하

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생각합니다. 나는 이따금 나의 죽음과 장례식에 대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나는 죽음을 음울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따금 “내가 진정으로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하고 자문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날이 오면 마틴 루터 킹 2세는 자신의 인생을 남을 돕는 데 바치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마틴 루터 킹 2세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전쟁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일생 동안 험벗은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주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일생 동안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나를 군악대장(軍樂隊長)으로 부르고 싶다면 정의를 알리는 군악대장, 평화를 알리는 군악대장, 평등을 위한 군악대장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나머지 사소한 것들은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죽은 뒤에 한푼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죽은 뒤에 멋지고 화려한 재물들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죽은 뒤에 헌신적인 인생을 남기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지나가는 길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노래나 말로 누군가의 용기를 북돋울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해 줄 수 있다면, 나의 삶은 헛되지 않은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다면, 나의 삶은 헛되지 않은 것이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 마/음/으/로/읽/는/글

은 총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 저녁에 다시 잠들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기도의 자세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보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것은 무관심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지요.

항상 오묘하고 심오한 신비를 주시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은 은총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도록 합니다.

젓먹이가 어머니를 신뢰하듯이 섭리에 맡긴다면 쓸데없는 걱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현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며 앞으로의 나날 또한 그분께 되돌려 드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발렌타인 L. 수자, 『님은 바람 속에서』 중에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운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 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춘려 김철수 유영남 김종훈 안경숙 조관행 홍선희 구명자 홍순구
 안홍숙 김준호 곽혜자 안정숙 정완수 김재광 이봉옥 최종원 배삼순
 김혜권 박영희 정복순 한인철 조윤숙 임보람

월정헌금:

조항범 오현정 황원순 황자순 박찬정 이경남 정진경 허광식

감사헌금:

박노경 김근중 정옥영 최영선 고사일 박현우 서재홍 박범희 박미영
 김중수 박준희 이기분 김정섭 김성한 조영순 조병무 송양진 김용진
 박효선 표명화 조관행 홍선희 박경원 김흥기 백혜숙 안종일 정현주
 김주희 무명1

생일감사헌금:

한완식 임정자 김애경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최 희 영	유 영 남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윤 정 덕	김 미 순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이 권 화	임 정 자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박 경 선	이 봉 배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문 금 석	조 병 주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흥 재	백 묘 현	김 경 수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송 의 섭	이 인 섭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최 희 정	최 속 화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장 혜 숙	이 순 정
빌 립 보	최 종 원	이 형 숙	이 형 숙	최 종 원
가 버 나 움	구 성 실	안 홍 숙	김 정 숙	이 권 화
나 사 렷	백 혜 숙	정 옥 영	정 옥 영	정 영 선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윤 정 화	박 미 영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조 항 미	박 혜 경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교 회	교 회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회** : 예배 후 4월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2. **신앙강좌** : 오늘 오후집회는 올해 두 번째 신앙강좌로 모입니다. 거창 셋별중학교 교장이며 교육혁신위원장이신 전성은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3. **로마서강해** : 28일 수요일에 2년 여 동안 계속해온 로마서 강해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5월 둘째 주 수요일부터 김재홍 목사님이 신명기를 강해합니다.
4. **교회설립기념주일** :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의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75주년입니다. 1,2부 연합으로 11시에 기념예배를 드리겠습니다.
5. **가족찬양제** : 5월 2일은 우리 교회 설립기념주일입니다. 오후집회 시간에 가족 찬양제를 갖습니다. 가족들이 찬양으로 하나되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신청해주십시오.
6. **교회생활사진전** : 지난 1년간 우리 신앙공동체가 걸어온 발자취를 사진을 통해 돌아보는 생활사진전시회가 시작됩니다. 수고하신 문화부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 **원로장로위로회** : 중구용산지방에서 지방에서 은퇴하신 장로님들 위로회를 26일 (월) 정동제일교회에서 오전 11시에 갖는다고 합니다.
8. **신앙실천** :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할 일을 생각해보고, 주님께 그 일을 감당할 믿음과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헌화 - 김창원 정지은 (결혼기념일)

*지난 주 장애인주일 헌금 70만원은 좋은소리선교회에 전달했습니다.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